

제3차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

주제성구 :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Ecce Ego, Mitte Me. 이사 6,8)



■ 일 시 : 2021. 11. 6.(토), 13:30~16:30

■ 장 소 : 주교좌 남천성당(1층 대성전)



천주교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목 차

I. 일정표	--- 03
II. 시작기도 및 인사	--- 04
III. 강연	--- 09
1. 기조 강연	--- 09
순교자 공경의 유래와 신학적 본질	
2. 주제 강연 1	--- 23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1821-1846)의 생애	
주제 강연 2	--- 44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영성	
IV. 질의 및 응답	--- 57
V. 총평 및 마침기도	--- 58
별첨 1. 질의서	--- 59

I

일 정 표

진행 : 홍영택(베드로) 선교사목국 부국장 신부

일 시	주요내용	담 당
13:00~13:30	접수/안내	조직 봉사팀
13:30~13:40	시작기도/ 주교님 말씀	교구장 손삼석(요셉) 주교
13:40~13:50	인사 말씀	교구평협회장 최재석(사도요한)
13:50~14:00	기조 강연	총대리 신호철(비오) 주교
14:00~14:50	주제 강연 1차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생애’ - 전수홍(안드레아) 신부 -
14:50~15:10	휴 식	화장실 안내(실내 및 실외)
15:10~15:50	주제 강연 2차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영성’ - 전수홍(안드레아) 신부 -
15:50~16:10	질의/응답	선교사목국장 이장환(마르티노) 신부
16:10~16:30	총 평	총대리 신호철(비오) 주교
	마침기도/강복	교구장 손삼석(요셉) 주교

II

시작기도 및 인사

진행 : 선교사목국 부국장 홍영택(베드로) 신부

1. 시작기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문]

-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 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 부산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회장 인사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예, 천주교인이오!

최재석(사도요한)

찬미 예수님!

존경하옵는 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회장 최재석 사도 요한입니다.

2019년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유네스코 본부는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 인물’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사유는 ‘**평등사상과 박애주의를 실천하고, 조선 전도를 제작하여 유럽 사회에 한국을 알리는데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 인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가톨릭 교회는 지난해 대림 제1주일인 11월 28일부터 올해 11월 27일까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의 해**’로 지정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교구 마다 다양한 기념행사를 하고 있지만, 부산교구는 전 교구민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주제강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패널을 모시고 토론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잦아들지 않아 선택의 여지 없이 주제강연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축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라도 진행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어려움 중에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교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 이후에 겁에 질려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세상에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과 하느님 나라를 용기 있게 선포하였습니다. 전 세계는 아직 코로나가 완전 종식은 되지 않았지만 **‘With 코로나’**, 즉 코로나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이제는 코로나19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싸워 이기고 극복해야 할 상대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구는 지난해 교구장님과 교구 사제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활동’**을 전개했고, 교구민 모두가 모금 활동에 동참하여 지금도 모금이 계속되어 총액이 곧 10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에는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을 전국 16개 교구 중 가장 먼저 실시하여 7억여 원의 백신 나눔 지원금을 주한 교황청 대사관을 통하여 교황청으로 전달했고, 교황님의 감사 편지가 주교회의를 통하여 전달되었음을 우리는 공유 했습니다. 이는 오직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의 가르침인 이웃사랑의 실천을 몸소 보여준 자발적 동참이었기에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아울러 2021년 10월 10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공동합의적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세계주교대의원 회의(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가 개막되었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 가톨릭교회는 2023년 10월까지 2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의 복음화 사명을 위한 체험과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향후 2년간 ‘**경청, 식별, 협의**’라는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부산교구는 오늘 이 아카데미를 경청의 첫 단추를 채우는 출발점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Ⅲ

기 조 강 연

순교자 공경의 유래와 신학적 본질¹⁾

천주교부산교구 총대리 신호철(비오) 주교

교회는 순교자와 성인들의 축일을 기념하면서 한분 한분의 인간적 위대함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현양하였다.²⁾ ‘성인 공경’³⁾의 유래와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성인 공경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거행하는 것과 어떻게 긴밀히 연관되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루는 순교자 공경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 1) 이글은 M. AUGÉ, “i santi nella celebrazione del mistero di Cristo” in *L’Anno Liturgico. storia, teologica e celebrazione* (Anàmnesis 6), ²1989, 247-259를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번역한 후 그것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 2) 로마미사경본이 크게 볼 때 전례시기부(pars temporalis)와 성인축일부(pars sanctoralis)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두 부분은 두 개의 독립적인 전례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단일한 전례주기를 형성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 3) ‘성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드물게는 순교하지 않은 성인을 구별하여 가리키기도 한다. 성인을 공경(veneratio)하는 예식(ritus)은 하느님께 드리는 경신례(cultus)와 결합되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주님께 드리는 ‘흠숭’(adoratio)과 구별하여 순교자를 포함하여 성인을 공경하는 것을 ‘공경’(veneratio)이라 표현하였으며, 또한 순교자와 성인을 공경하며 하느님께 드리는 경신례(cultus)를 ‘순교자 공경’, ‘성인 공경’이라 표현하였다.

1. 성인 공경의 기원과 발전

1.1. 순교자 공경 - 초기 증언들

사도 시대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영웅들을 합당한 공경으로 매장하였다. 사도행전의 증언에 따르면, 첫 순교자 스테파노의 경우, “독실한 사람 몇이 스테파노의 장사를 지내고 그를 생각하며 크게 통곡하였다”(사도 8,2)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순교자를 공경한 것에 대한 증언은 2세기 중반이 지나서야 겨우 몇 가지 단편적인 것만 발견된다. 3세기 중반 이후로는 더 명확한 증언들이 자주 나타난다.⁴⁾

순교자 공경에 대한 주목할만한 첫 번째 증언은, 스미르나 교회가 폴리카르포 주교의 순교에 대해 작성하여 필로멜리오와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보낸 편지에서 발견된다.⁵⁾ 이 편지에 담겨 있는 증언은 일어난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 하는 이야기이다. 스미르나의 주교는 156년에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 문서는 2세기 중엽의 것이며 동방교회인 소아시아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폴리카르포가 순교한 후 스미르나의 신자들이 한 일은 이렇다:

4) Cfr. AUGÉ, “i santi nella celebrazione del mistero di Cristo”, 248.

5) Cfr. H. DELEHAYE, *Les origines du culte des martyrs* (Subsidia Hagiographica 20), Bruxelles 1933, 42-43.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진주보다 소중하고 금보다 귀한 그분의 뼈를 수습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합당한 장소에 모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일 수 있는 한 기쁘고 즐겁게 모여서, 그분 순교의 천상탄일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경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전투를 치른 분들에 대한 기억을 되새겼으며, 앞으로 전투를 치러야 할 이들에 대해서는 독려하여 준비시켰습니다.⁶⁾

비록 본문이 짧지만, 순교자 공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정확히 증언한다.

- 1.1.1. 신자들은 순교자 폴리카르포의 유해에 대해 특별한 경의를 표했다. 이교의 처형 관습에 따라 순교자의 육신을 불태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후에 유골을 수습하여 합당한 장소에 안치하였다.
- 1.1.2. 스미르나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폴리카르포 주교의 순교 일주년이 되는 날에 그분의 무덤에 모였으며 그날을 순교자의 ‘생일’(dies natalis) 이라고 불렀다. 초세기의 순교자 공경은 지역과

6) 하성수 역주, 「스미르나의 주교 폴리카르푸스 순교록」, 18,2-3 (교부 문헌 총서 12. 폴리카르푸스 편지와 순교록), 분도출판사 2000, 178-179. 본문에 제시한 우리말 번역문은 따로 번역한 것임.

밀착되어 있었는데, 특정한 공동체 그리고 순교자의 유해를 모신 정확한 장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교인들은 매년 고인을 기억하는 행사를 거행하였는데, 기일은 불길한 날이라고 여겼기에 기일이 아니라 생일에 거행하였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자의 기일이나 안장한 날을 택하였으며, 오히려 그날을 순교자의 생일이라고 불렀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이 죽은 날이 그가 영원한 삶으로 태어나는 날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런 개념은 이미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에게서 발견된다: “자, 이제 제가 태어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형제들이여, 저를 측은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⁷⁾

- 1.1.3. 순교자의 천상탄일은 “기쁘고 즐겁게” 거행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이 칠십인역과 신약의 전통에서 유래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성찬의 잔치에 참여한 이들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확신한다.⁸⁾ 이와 관련한 더 명확한 증언들이

7)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박미경 역주, 「로마인들에게」, 6,1-2 (교부 문헌 총서 13. 이냐시오스 일곱 편지), 분도출판사 2000, 88-91. 본문에 제시한 우리말 번역문은 따로 번역한 것임.

8) Cfr. R. BERGER, *Die Wendung “Offerre pro” in der römischen Liturgie* (Liturgiewissenschaftliche Quellen und Forschungen 41),

3-4세기 이후로 나타난다.

- 1.1.4.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맞이하며 보여주었던 위업을 “되새기며” 자신들도 박해 시대에 빈번히 발생하는 유사한 상황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이러한 되새김은 아마도 전례 거행 중에 순교록을 낭독하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 1.1.5.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드리는 ‘흠숭’(adoratio)과 순교자에게 드리는 ‘공경’(veneratio)을 구별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기에 그분을 흠숭합니다. 반면에 순교자들은, 주님의 제자요 그분을 닮은 자로서 합당하게 공경합니다. 그분들은 스승보다 더 커질 수 없는 방식으로 스승에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⁹⁾ 어떤 경우에도 순교자는 반드시 “공경”하였는데, 그 이유는 순교자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비에 대해 특별한 관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 문헌은 순교자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수난을 나란히 함께 놓고 있다: “폴리카르포 주교는 사실 주님처럼 넘

Münster/W. 1965, 29-30.

9) 「스미르나의 주교 폴리카르푸스 순교록」, 17,3, 176-177.

겨지기를 간절히 고대하였다.”¹⁰⁾.

서방교회에서는, 오직 카르타고의 주교 성 치프리아노(대략 210-258)에게서만, 지역교회가 순교자를 기념하기 위해 기록을 남겼다는 언급을 볼 수 있다. 치프리아노 주교는 동료 사제들에게 두 가지를 권고하였는데, 신앙을 증거한 이의 유해를 정성껏 매장하라는 것과 순교자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순교한 날짜를 기록하라는 것이다.¹¹⁾

1.2. 죽은 이들에 대한 공경에서 순교자 공경으로

초세기 그리스도인의 순교자 공경은 경신례와 장례식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고대 교회에서 이러한 예식들은 지역에 따라 따르고 그리스-로마 세계와 유대교에서 유래한 것들이었다. 몇 가지 중요한 예만 살펴보자.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을 떠난 날’(dies obitus)은 그의 시신이 ‘안치된 날’(dies depositionis)이었다. 시신 안치의 방식은 땅에 묻는 것 곧 매장이었다. 화장을 했다고 믿을 만한 증언은 전혀 없는데, 화장이 없었던 것은 교의적인 이유에서

10) 「스미르나의 주교 폴리카르푸스 순교록」, 1.2, 126-127.

11) Cfr. CIPRIANUS, *Epistola* 37, in PL 4: “I. Cyprianus presbyteris et diaconibus fratribus salutem. [...] Corporibus etiam omnium qui, etsi torti non sunt in carcere, tamen glorioso exitu mortis excedunt, impertiat et vigilantia et cura propensior. [...] II. Denique et dies eorum quibus excedunt annotate, ut commemorationes eorum inter memoriis martyrum celebrare possimus.”.

가 아니라 아마도 유대교 관습을 보존하려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예식에 참여했던 이들은 무덤 근처에 모여 함께 장례 음식을 먹었다. 이 장례 식사에 사제가 참여했다는 증언은 3세기부터 발견되는데, 이렇게 장례 식사는 성찬례가 되기도 하였다. 성찬례를 거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제가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없었다. 무덤에서 성찬례를 거행하는 관습은 이미 2세기 중엽에는 자리를 잡았으며, 이러한 성찬례에 관한 명확한 증언이 4세기 이후로는 많이 나타난다.¹²⁾

1.3. 순교자 공경에서 성인 공경으로

라틴어로 순교자를 뜻하는 ‘마르티르’(martyr)라는 말은 ‘증언’(證言)을 뜻하는 그리스어 ‘마르투스’(ma,rtuj)에서 유래한다. 순교자는 그리스도와 그분께 대한 신앙 교리를 목숨을 바쳐 희생함으로써 증언한 이를 뜻한다.

처음에는 교회가 순교자만을 공경하였는데, 순교자는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결합된 이들이다. 그러나 이후에 박해시대가 끝나자 순교하지 않은 다른 훌륭한 인물들도 공경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티르’(martyr ; ma,rtur)라는

12) Cfr. C. VOGEL, "L'environnement culturel du culte des martyrs", *Irénikon* 45 (1972), 406.

말은 점차로, 신앙을 위해 고문을 받고 죽은 이들만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 옥중에서 죽거나 유배지에서 죽거나 때로는 유배에서 돌아와서 죽은 이들에게도 적용되었다.¹³⁾ 순교자라는 말의 외연(外延)이 확장된 것이다. 순교자 공경 또한 처음에는 순교한 이들에게만 국한되었지만, 점차로 고문받아 죽지 않은 다른 훌륭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거행되었으니, 예를 들자면, 신앙을 증거한 이들, 위대한 주교들, 동정녀들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이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순교의 개념이 점차 확장된 현상을 옳게 평가하려면, ‘그리스도교의 성덕에 있어 핵심 개념이 항상 순교에 뿌리를 둔다’는 것과 ‘순교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순교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이면서 성덕으로 이르는 가장 고귀한 길이다.¹⁴⁾

13) Cfr. H. DELEHAVE, Sanctus. *Essai sur le culte des saints dans l'antiquité* (Subsidia Hagiographica 17), Bruxelles 1972, 74ss.

14) 교회헌장 42항 참조: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시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으므로, 주님과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1요한 3,16; 요한 15,13 참조). 사랑의 이러한 최대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특히 박해자들에게 보여 주도록,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첫 시대부터 부름 받았고 또 언제나 부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죽음을 자유로이 받아들인 스승을 본받고 피를 흘려 스승과 동화되는 순교는 교회에서 최상의 은혜로 또 사랑의 최고 증거로 여겨진다. 그러한 은혜가 소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모든 제자는 그 준비를 갖추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가 늘 겪고 있는 박해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2. 성인 공경의 신학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파스카”가 전례주년의 거행에 있어 중심이 된다는 점을 확실히 선언하였다.¹⁵⁾ 그래서 성인 공경도 그 자체로 거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지평 안에 통합하여 편입한 것이다.¹⁶⁾ 그리스도교 전례의 성인 공경을 통해, 성인들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충만히 살 줄 알았던 이들’이라는 사실이 온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드러난다. 이런 의미에서 성인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모델이 되며 하느님 백성을 위해 전구할 수 있는 이들인 것이다.

전례주년의 ‘성인축일부’(pars sanctoralis)에서 교회가 유일하게 거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비이다. 이 단일한 신비를, 성인들의 업적 중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부분을 통해 드러낸다. 교회가 성인들을 공경할 때는, 성인의 삶 안에서 유일한 구세주요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15) 전례헌장 102항 참조: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한 해의 흐름을 통하여 지정된 날들에 하느님이신 자기 신앙의 구원 활동을 거룩한 기억으로 경축하는 것을 자기 임무라고 여긴다. 주간마다 주일이라고 불린 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일 년에 한 번 주님의 복된 수난과 함께 이 파스카 축제를 가장 장엄하게 지낸다.”.

16) 전례헌장 104항 참조: “그 밖에 순교자들과 다른 성인들의 기념도 교회는 연례 주기에 넣는다. 그들은 하느님의 온갖 은총을 통하여 완덕에 이르렀고, 이미 영원한 구원을 얻어 천상에서 하느님께 완전한 찬미를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전구하고 있다. 성인들의 탄일에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은 성인들 안에서 파스카 신비를 선포하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인도하는 그들의 모범을 신자들에게 보여 주고, 그들의 공로로 하느님의 은혜를 간청하여 받는다.”.

‘승리하시는 은총’을 확인하고 선포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자비 때문에 성부께 감사드리는데, 이 자비는 교회의 지체 중 하나인 성인에게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며,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체인 온 교회 안에서도 드러난다.

성인은 주님의 파스카 신비에 충만히 참여하고, 바로 여기에 그의 성덕이 존재한다. 성인에 대한 교회의 단적인 생각은, 모든 성인이 열정적으로 파스카 신비를 살았고 그 열정으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성부께로 건너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성덕의 원형이며 최고의 성인이며 “유일하신 성인”(tu solus sanctus)이다. 그러므로 성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이며 파스카의 그리스도와 충만한 친교 안에서 사는 이들이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볼 때, 성인 공경에서 순교자가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위에서 이미 제시하였지만, 「스미르나의 주교 폴리카르푸스 순교록」에서도 순교자의 죽음을 주님의 수난에 연결하여 바라본다. ‘베로나 성사집’(= Ve)에 담겨 있는 로마 전례의 고대 기도문에는 순교자를 “주님 수난을 닮은 자”(imitator dominicae passionis)¹⁷⁾로 제시한다. 또한 베로나 성사집은 주님의 수난과 사도 및 순교자의 수난을 “복된 수난”(beata passio)¹⁸⁾라는 동일한

17) Ve 692.

18) 주님의 수난: Ve 941; 사도 및 순교자의 수난: Ve 286.301.311.366.

용어로 표현한다. 그래서 순교자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영광 안에서 형제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던 그 사랑의 탁월한 표지가 된다.¹⁹⁾

원래부터 ‘순교자’는 그리스도교 완덕의 이상적인 화신이었고 그래서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공경하였다면, ‘다른 성인들’, 예를 들어 증거자(confessor), 주교, 동정녀 등에 대한 공경은 순교자 공경을 확장하면서 생겨났다. 순교자 공경의 가장 오래되고 전형적인 형태는 ‘기념’(memoria)이었고, 그들에 대한 기념이 성찬례 신비 거행 안에 받아들여졌다. 파스카 신비와 순교자의 천상탄일 그리고 주님께 대한 기념과 성인에 대한 기념은 각각 놀라운 정도로 서로 연결된다.

성찬례는 순교의 원천이며 모든 성덕의 기원이다. 코스마와 다미아노의 천상탄일에 ‘구 켈라시오 성사집’(= GeV)의 예물기도(secretata)에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 희생제사를 봉헌하오니, 바로 여기서 모든 순교가 비롯되나이다.”²⁰⁾ 현행 로마미사경본에서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 축일에 바치는 예물기도(super oblata)는 이 순교의 개념을 모든 유형의 성덕으로 확장한다: “지극히 거룩한 신비 그 안에 온갖 성덕의 원천을 마련하셨나이다.”²¹⁾ 또한 현행 로마미사경본의 한

19) Cfr. A. DONGHI, “La memoria dei santi nel Messale Romano”, *QRL* N.S. 7 (1981), 218-219.

20) GeV 1030: “Sacrificium illud offerimus, de quo martyrium sumpsit omne principium”.

21) MR2008, 795: “ut sacrosancta mysteria, in quibus omnis sanctitatis

영성체 후 기도는, 순교자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역경을 견디고 순교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 성찬례가 영혼의 힘을 줄 수 있다고 단언한다.

저희가 받아 모신 이 거룩한 신비는 영혼에 힘이 되고, 그 힘으로 복된 순교자 *아무는* 주님을 충실히 섬기고 수난에서 승리하였나이다.²²⁾

이러한 교의는 전통적인 것이니, 곧 교부들이 계속하여 가르쳐온 바에 합치하는 것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성 아우구스티노가 순교의 신비는 제대의 신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니, 곧 성체는 용사(강한 이)들이 전투를 치르기 위해 먹는 빵이며 순교자들을 쓰러지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다.²³⁾ 다른 한편 성 아우구스티노는 성체가 순교 은총의 기초라고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피를 받아 마셨으니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피를 바칠 때에 최후 만찬 신비의 모든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²⁴⁾

fontem constituiti".

22) MR2008, 916: "sacra mysteria quae sumpsimus eam animi fortitudinem, quae beatum N. martyrem tuum reddidit in tuo servitio fidelem et in passione victorem."

23) Cfr. AUGUSTINUS, *Sermo* 333,1 in PL 38: "Fortes sunt martyres, firmi sunt martyres: sed panis confirmat cor hominis. (Psal. ciii,15)".

24) Cfr. AUGUSTINUS, *Sermo* 304,1 in PL 38: "Caenae Dominicæ mysterium, ut cuius sanguinem suminus, pro ipso animam

한편, 순교는 교회론적 차원을 지닌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순교는, 어둠과 악의 힘에 맞서 싸우는 전투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하시는 힘과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고 지탱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온 인류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순교자는 단지 “그리스도를 닮은 이” 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한 지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망에서 순교자의 희생은, 교회가 그분의 거룩한 신랑이 베푸는 사랑에 대해 내어놓는 응답으로 드러난다. 순교자가 흘린 피는 바로 교회의 피다. 이에 관해 베로나 성사집의 한 감사송은, 교회가 순교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피를 바친다고 한다.

그[순교자]의 증거를 보시고, 자신의 존귀한 피로 교회를 속량하신 분께서 교회가 흘린 피에 대하여 자애를 보이셨나이다.²⁵⁾

성인들을 기념하면서, 교회는 성인들과의 친교를 통해, 성인들이 치루었던 영적인 전투와 그분들이 누리는 영원한 복락

ponamus. [...] Ibi sacrum Christi sanguinem ministravit: ibi pro Christi nomine suum sanguinem fudit. [...] Sicut Christus pro nobis animam suam posuit, sic et nos debemus animas pro fratribus ponere.”.

25) Ve 818: “[...] quo pro eius confessione uel nomine, qui eam sanguine suo redemit inpenso, obsequium proprii cruoris exhibuit:”.

에 신비롭게 참여한다.

그러므로 사목 현장에서 성인 공경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합당하게 성숙시키고 또 심화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으로 모든 신심의 중심이요 항구한 대상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거행되어야 할 것이다. 순교자 공경은 성찬례로 연결되며, 교회의 모든 삶과 전례의 절정이요 원천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파스카 신비이다.

약호 목록

- GeV *Liber Sacramentorum Romanae Aeclesiae ordinis anni circuli (Sacramentarium Gelsianum)*, L.C. Mohlberg (ed.), (Rerum Ecclesiasticarum Documenta, series maior, fontes 6), Roma 1960.
- MR2008 *Missale Romanum. ex decreto Sacrosancti OEcumenici Concilii Vaticani II instauratum auctoritate Pauli Pp. VI promulgatum Ioannis Pauli Pp. II cura recognitum. Editio typica tertia emendata*, Città del Vaticano ^{3e}2008.
- PL *Patrologiae cursus completus. Series latina*, J. P. Migne (ed.), 221 voll., Paris-Montrouge 1844-1864.
- QRL *Quaderni di Rivista Liturgica*, Leumann-Torino 1996ss.
- Ve *Sacramentarium Veronense*, L.C. Mohlberg (ed.), (Rerum Ecclesiasticarum Documenta, series maior, fontes 1), Roma 1954.

Ⅲ

주 제 강 연 1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1821-1846)의 생애

전수홍(안드레아) 신부

◇ 들어가는 말

2019년 11월 14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 인물’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선정되었다. 역대 한국인은 정약용과 허준 두 분이었는데 세 번째로 선정된 것이다.

이 사실은 김대건 신부님께서 단지 천주교회의 중요한 인물을 넘어서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교구 평신도 아카데미의 첫 강의 주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생애’는 먼저

- 1) 출생과 신학 수업
- 2) 사제서품과 사목활동
- 3) 체포와 순교라는 소제목으로 나누어 전개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강의를 신자들에게 시각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992년 선종하신 탁희성 비오 화백의 그림 ‘김대건 신부 일대기’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한다.

1. 출생과 신학 수업(1821-1844)

본관은 김해. 김대건은 1821년 8월 21일 충남 내포지방 솔미(현재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에서 천주교 신자 김제준 이나시오(1796-1839 순교)와 고 우술라의 아들로 태어났다. 솔미는 김대건 성인의 집안이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곳인데, 김대건 성인의 증조부인 김진후(족보상으로는 김운조 金運祚로 되어 있음)²⁶⁾ 비오가 50세에 영세한 이후 교우 마을이 되었다.

부친은 열정적인 가톨릭 교인으로서 교회에 헌신적이었고, 1839년 기해박해 때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다. ‘재복’이라는 아명으로 불리던 김대건은 김해김씨 안경공파(安敬公派)에 속하며 그의 집안은 대대로 순교의 치명자(致命者) 집안이었다. 김대건이 7세가 되던 해(1827) 삼남 지방에서 벌어진 정해 박해²⁷⁾를 피해 솔미를 떠나 그의 조부 김택현(이존창의 딸

26) 당시 조선교회가 창립될 때 서울로 와서 함께했던 내포지방의 여사울(충남 예산지역) 출신 이존창과 김진후는 10리도 안되는 가까운 곳에 살았기에 김진후는 이존창의 전교로 ‘비오’라는 세례명을 받고 입교하였으며 김진후의 아들 김택현은 이존창의 딸 멜라니아와 혼인함으로써 사돈관계를 맺었다. 사실 아들이 먼저 입교하고 김진후가 입교함.

27) 1827년 정해년에 전라남도 곡성의 한 교우촌(옹기골)에서 순교복자 한덕은 토마스의 아들 한백겸은 성격이 광포하고 주사가 심했는데 어느 날 가마를 여는 축하연에서 술에 취한 한백겸이 주막집 부인에게 행패를 부리자 남편

멜라니아와 혼인함, 1830년 사망)을 따라 서울과 경기도 용인의 한덕동 등 여러 곳으로 옮겨 살다가 김택현 조부가 사망한 후 부친 김제준이 가족을 데리고 한덕동 이웃의 용인군 골배마실(현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에 옮겨와서 소년 시절을 보냈다.

1836년 그의 나이 만 15세 되던 해까지 서당과 조부 밑에서 한문을 익혔고, 열성적인 부모, 특히 독실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재복(대건)은 어려서부터 훌륭한 재능과 강한 의지력으로 경건한 신앙심을 보였다.

1836년 초에 내한한 모방(Maubant) 신부로부터 그해 6월 7일에 ‘안드레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7월 11일 예비 신학생으로 선발되어²⁸⁾ 서울로 올라와 라틴어와 교양수업을 받았다. 국내정세로 인해 더 이상의 학업이 어려워지자 모방 신부는 예비 신학생들(최방제, 최양업, 김대건)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신학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닐라나 싱가포르 혹은 페낭에 있는 신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1836년 12월 2일, 김대건은 두 동료와 함께 모방 신부 앞에서 성서에 손을 얹고 조선교회 책임 신부들에 대해 순명(順命)할 것을 선서했고, 장상(長上)들의 허락 없이 다른 지방으로 가거나 수도회에 입회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이 천주교를 관아에 고발해 박해가 일어났다. 이 박해로 경상북도 상주, 전라북도, 충청도와 서울의 일부에까지 이 박해가 파급되었다.

28) 같은 해 2월6일에 최양업 토마스가 선발되고 3월 14일에 최방제 프란치스코가 선발되었기에 김대건 안드레아는 가장 늦게 선발되었다.

선서했다.²⁹⁾ 그리고 당시 중국으로 돌아가던 중국인 여항덕(余恒德) 파치피코³⁰⁾ 신부와 함께 서울을 떠나 정하상, 조신철 등 몇몇 교우들의 안내로 국경까지 가서 12월 28일 변문을 통과, 같은 해 12월 28일에는 당시 조선 입국을 위해 요동에서 머무르고 있던 샤스탕 신부 댁에 도착했다. 그 후 1837년 6월 7일에 목적지인 마카오에 도착하여 파리외방전교회 극동대표부에 도착하여 신학 수업을 시작했다. 파리외방전교회 마카오 극동대표부는 조선신학교를 세워 깔레리(Callary)신부가 교장으로 임직하면서 동료 신부들의 도움을 받아 세 명의 조선 신학생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김대건은 최양업과 함께 이곳 대표 르그레즈와 신부를 비롯하여 깔레리 신부, 리브와 신부, 데플레슈 신부, 메스트로 신부, 베르뇌 신부, 페레올 주교(1838년 9월 14일 조선 대목구 부주교로 임명되었으며, 1843년에 교황의 칙서를 전달받았다) 등에게서 여러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들의 스승은 7명이었다. 마카오에 도착한 1837년 11월 27일에는 동료 신학생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열병으로 사망했다.

1839년 4월 6일 마카오에는 제1차 중영 전쟁(아편전쟁)이 발발하여 내란 상태(일종의 민란)에 빠져 깔레리 신부, 데플

29)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대부분 프랑스 교구신부 출신들이었다. 따라서 한국 선교 시 다른 수도회의 선교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오늘날 한국교회도 수도회보다 교구사제 중심의 교회가 된 것도 그 영향이라 할 수 있다. 1920년대 들어온 베네딕도회도 서울이 아니라 북한 함흥, 원산지역으로 간 것도 그 사례라 하겠다.

30) 유방제 신부라는 이름은 잘못된 이름이며 여항덕 신부는 1834.1-1836.12까지 조선에서 활동함.

레슈 신부들과 함께 조선 신학생들은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 마닐라의 도미니코 수도원장의 초청으로 롤롬보이 농장으로 피신하여 수학하기도 했다(1839년 9월 21일 조선에서 앙베르 주교 순교로 페레올 주교가 승계함).

또한 김대건은 어려서부터 영양실조에 시달려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렸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김대건은 라틴어와 스콜라철학 과정을 마치고 교리학과 조직신학 공부에 본격적으로 매진했다. 하지만 1842년 2월 15일 김대건은 신학 공부를 중단하고 조선 선교사로 임명된 메스트르(Maistre) 신부와 함께 조선 국왕과 통상을 맺으려는 프랑스 세실(Cécille) 제독의 통역관으로 에리곤(Erignon)호에 승선하여 마카오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1차 탐색 여행). 그러나 이들이 계획했던 일은 뜻대로 되지 못했다.

■ 1차 탐색 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1842년 2월 28일 : 마닐라 도착. 마닐라에서 르그레즈와 스승 신부에게 서한 발송
- ▷ 4월 19일 : 마닐라 출발하여 대만으로 향함
- ▷ 5월 경 : 대만을 경유, 양자강 앞바다의 주산도에 입항
- ▷ 6월 7일 : 양자강 하구 도착
- ▷ 7월 초 : 오송(吳淞) 도착
- ▷ 7월 17일 : 동료 최양업 토마스는 만주 선교사 브뤼니에르

신부와 함께 프랑스 군함 파보리트(la Favorite)호에 탑승하여 마카오를 출발

- ▷ 8월 23일 : 동료 최양업과 상봉함
- ▷ 8월 29일 : 남경조약 체결식장에 참석. 에리곤호 복상 포기
- ▷ 9월 17일 : 메스트르 신부와 함께 상해에 있는 강남 대목 구장 베시(Bési) 주교 댁에 도착하여 최양업과 다시 상봉함
- ▷ 10월 2일 : 베시 주교의 주선으로 브뤼니에르 신부 메스트르 신부, 최양업, 반 요한 등과 함께 중국 배를 타고 상해를 출발하여 북상함
- ▷ 10월 23일 : 요동의 남단 태장하(太莊河) 해안에 도착함

1842년 10월 26일 육로를 통해 조선에 잠입하기로 결정하고 요동 지방의 태장하 근처 백가점(白家店) 교우촌(두 요셉 회장집에 머무)에 당도한 김대건은 그해 12월 23일 혼자 국로를 개척하기 위해 국경지방, 즉 봉황성의 책문(柵門)으로 떠났다. 12월 27일 그는 도중에 북경으로 들어오는 조선 사절단 일행에 낀 밀사 김 프란치스코라는 교우를 만나 기해박해와 성직자 영입운동의 소식을 듣고 자신이 입국하여 메스트르 신부의 영입을 준비키로 결심했다.³¹⁾ 김대건은 12월 29일 의주를 통해 조선에 잠입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서울로

31) 이때 부친 김제준 이나시오가 1839년 9월 26일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1843년 2월 16일 요동에서 김대건이 리부아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저의 부모도 역시 많은 고난을 당하여 아버지는 참수되었고, 어머니는 의탁할 곳이 없는 비참한 몸으로 신자들의 집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향하던 중 부자연스러운 언행으로 주민들의 의심을 사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1843년 1월 6일에 백가점으로 되돌아와야 했다. 김대건은 이 여정 동안 여섯 통의 편지를 르그레주와 스승 신부에게 발송했다.

2. 사제서품과 사목활동(1845-1846)

김대건은 백가점(白家店)에서 은신하던 중 1843년 4월에 소팔가자(小八家子)³²⁾로 옮겨와 최양업과 함께 신학공부를 계속했다. 1844년 2월 조선의 3대 대목구장 페레올(Ferréol) 주교의 명령으로 조선동북부 입국로를 개척하기 위해 훈춘을 거쳐 두만강을 건너 경원(慶源)에서 조선 교우를 만나³³⁾ 주교의 입국절차를 논의했으나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 압록강의 서북부 국경로를 이용하기로 합의하고 그해 4월에 다시 소팔가자(小八家子)로 돌아왔다. 1844년 12월 17일 김대건은 드디어 신학공부를 마치고 페레올 주교로부터 부제품을 받았다.

1845년 1월 1일 페레올 주교와 함께 중국 변문(봉황성 책

32) 소팔가자: 길림성의 장춘 서남쪽, 사평 인근에 위치한 교우촌으로, 만주 대목구의 초대 대목구장인 베롤(E.I.F. Verolles, 方) 주교가 1841년에 일대의 광대한 토지를 매입하고 성당을 건립하였다.

33) 당시 경원 장터에서 한 달 이상이나 기다리던 밀사를 만났는데 서로 약속된 표식으로 손에는 흰 손수건을 들고 허리띠에는 붉은색 차 주머니를 찼다고 한다. 김대건 부제가 밀사에게 건넨 말은 ‘당신 이름이 무어요’ 하자 ‘나는 한서방이요’라고 대답했고 다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요?’라고 묻자 ‘그렇소’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문)에 도착한 김대건은 조선 교우들과 상봉했다. 그러나 마중 나온 교우들이 외국선교사들의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김대건 자신만 조선으로 출발했다. 무사히 국경을 넘은 김대건은 개성을 지나 1845년 1월 15일 서울에 도착했다. 그는 현석문(玄錫文)이 마련한 집(석정동 : 돌우물골)에 은신하면서 교회 사정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월에는 중병에 걸려 15일간 고생을 하기도 했다.

김대건은 곧 리보아(Libois) 신부에게 조선 귀국사실과 함께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당 신부 등의 순교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천연두 약과 치료법을 문의했다. 또한 3~4월에는 서울에서 현석문 가롤로 등의 도움으로 “조선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는 페레올 주교와 성직자들이 내한하여 거주할 집을 충청도 해안지방에 마련코자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서울 석관동에 집 한 채를 마련하고 배를 한척 사서 상해로 여행할 교우를 선정하고 사공들을 구했다. 그리고 1845년 4월 30일에 11명의 교우들을 데리고 인천 제물포에서 출발하여 5월 28일 오송을 거쳐 6월 4일 상해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리고 상해에서 7월 23일 리보아 스승 신부에게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발송했다.

1845년 8월 17일에 김대건은 상해 김가항(金家巷)성당에서 페레올 주교에게 사제서품을 받고 8월 24일 만당 소신학교 횡당(橫堂)성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했다. 일주일 후인 8월

31일 김대건 신부는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를 대동하고 조선을 향해 상해를 떠났다. 그러나 풍랑으로 인해 9월 28일 제주도의 해안(차귀도 근처 용수성지)에 표류하여 닿게 되자 이로부터 전라도 해안을 따라 금강으로 접어들었다가, 10월 12일에 충청도 강경지방 황산포 나바위(현,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에 상륙했다. 김대건은 곧 상경하여 서울과 그 인근, 특히 용인지방을 중심으로 은이공소와 교우들을 방문하고 성사를 집행했다.(1846년 1월 메스트르 신부와 최양업 부제는 조선의 북방지역으로 입국하려 했으나 실패)

서품 이후 고국에 입국한 김대건에게는 사목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서품 즉시 상해를 향해 떠나야 했다. 즉, 조선에 입국하여 1845년 11월 서울에 도착한 이후 이듬해인 1846년 5월까지 6개월 정도만 사목활동을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프랑스 신부들의 조선 입국로를 개척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 중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이었다. 그의 첫 사목은 서울 석정동(石井洞)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용인(은이공소)의 골배마실(은이공소와 골배마실은 자동차로 19분 정도 거리)에서 음식을 구걸하러 다니던 모친과 상봉하였고 이후 체포될 때까지 서울과 용인을 오가며 신자들에게 성사와 미사를 베풀며 사목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김대건의 사목활동에 대한 증언이 관찬자료(官撰資料) 일성록(日省錄)과 여러 신자들의 고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 고증에 따르면 김대건은 6개월 동안 서울의 미나리

골, 김회장의 집, 무쇠막, 심사민의 집, 서빙고, 쪽우물골 등지를 방문하여 교우들에게 성사를 주었다. 그리고 용인지역에서는 은이, 터골 등지에서 성사를 주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천지역까지도 사목방문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1846년 부활 대축일 미사(4월 13일)를 은이 공소에서 드린 다음 상경하여 서해로 개척 루트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3. 체포와 순교(1846)

김대건 신부는 최양업과 메스트로 신부의 입국로를 찾아보라는 페레올 주교의 명을 받고 1846년 5월 14일 서울 마포에서 임성룡의 배를 타고 황해도로 떠났다. 5월 25일 연평도에 도착하고, 5월 29일 백령도에 도착하여 조업 중인 중국인 어선들과 접촉하여 페레올 주교의 편지와 자신의 편지, 그리고 조선지도 등을 메스트로 신부에게 전달하도록 전했으나 실패하여 주정에 압수되었다. 그 후 6월 5일 황해도 순위도의 등산진(登山鎭)에서 관헌에게 체포(1846년 6월 5일)되었다.³⁴⁾

김대건은 웅진군의 옥으로 끌려와 심문을 받고³⁵⁾ 5일 후에 황해도 감사가 있던 해주로 이감되었다. 6월 10일 황해도 감영에서 압송된 김대건은 네 차례에 걸쳐 심문을 받으면서 배

34) 당시 순위도에서 김대건 신부가 타고 온 배를 징발하려던 관헌과 언쟁하다 체포되었다.

35) 당시 관장 정기호가 ‘당신이 천주교인이요?’라고 묻자 김 신부는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요’라고 대답했는데 이 내용이 희년의 표어가 되었다.(1846년 8월 26일 페레올 주교에게 보내는 옥중서한에서)

교를 강요받았고, 6월 21일 다시 한양(서울)의 포도청에 이송되어 40차례에 걸쳐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김대건은 포도청에서의 첫 번째 진술에서는 중국 광둥 사람으로 자백하고 있으나, 여섯 번째 진술에서 마침내 자신이 조선 사람임을 밝히면서 아울러 중국으로 유학하게 된 경위를 진술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미 기해박해 때 조선 소년 3명이 외국으로 유학 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당시 정부는 3명의 프랑스 선교사, 유진길, 정하상 등을 심문하면서 ‘양인청래(洋人請來: 서양인을 조선으로 초청)’와 ‘삼아치송(三童治送: 3명의 아동을 중국으로 보냄)’ 문제에 집중되었다. 즉 선교사 3명을 청해온 사실과 최방제, 최양업, 김대건 3인의 소년을 성직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외로 보낸 사실을 일종의 모략으로 보았다.

또한 그 모략은 이미 황사영의 백서에서 계획되었던 것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려 하였다. 김대건이 중국 선박에 전한 서한들은 외국인과 내통했다는 더할 나위 없는 증거가 되었고, 더군다나 김대건이 조선 연안을 그린 지도는 외세를 불러들이는 음모를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재판관들과 대신들은 김대건의 뛰어난 외국어 실력(중국어, 라틴어, 불어 등)과 폭넓은 서양지식에 놀랐고, 대신들은 그에게 지리서 편술과 영국제 지도의 해독을 지시하여, 옥중에서 두 장의 지도를 채색하고 한 부는 국왕에게 바치기도 했다. 이러한 재능은 조정의 인정을 받아 일부 대신

들은 김대건 구명운동을 벌여 판결을 3개월이나 늦추게 하기도 했다.³⁶⁾

이러는 동안 김대건과 연관된 10여명의 교우들이 서울에서 체포되었다. 즉 그해 음력 6월에는 배 선주였던 임성룡의 부친인 임치백 등이 잡히고 음력 7월 10일에는 일찍이 기해 일기를 지은 현석문 등이 잡혔고, 8월에는 한이형이 체포되었다. 이렇게 김대건의 체포로 인해 ‘병오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1846년 8월 초, 세실 제독이 세척의 군함을 이끌고 충청도 홍주(오늘날의 홍성)에 나타나 기해박해 중 세 명의 프랑스 선교사들을 살해한데 대해 항의하고 문책하는 서신을 주민을 통해 조정에 전달했다. 세실제독은 조선과 청국(淸國)처럼 조약을 맺고 가톨릭의 종교자유를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본인의 계획은 소함들을 집결시킨 후에 이들과 함께 조선 해안에 가는 것이며 조선 정부와 교신할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국(同國)은 오래 전부터 하기(下記)와 같은 사유로 프랑스 군함의 방문을 약간 불안스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수년 전에 종교박해가 있었습니다. 대비가 이끄는 정파가 기독교인들을 옹호하던 파를 전복시키기에 이르고 조선교구 앵베르 주교와 그와 같은 프랑스인 신부 2명을 다수의 조선인 천주교신자와 함께 처형한 것입니다. 해명을 요구할 여지가 있으며 좀 더 조사해야 할 사건이며 본인이 시

36) 당시에 김대건 신부가 구사하던 언어는 영어, 스페인어, 라틴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5개국을 구사할 수 있었다.

도할 생각입니다. 본인은 조선인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만일 친분관계를 이룩할 수 있다면) 기독교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입법 기준으로서 중국의 황제가 최근에 공포한 법령을 조선 정부가 채택하도록 할 생각입니다.”³⁷⁾

세실 제독은 중국과 맺은 황포조약³⁸⁾을 조선에도 적용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즉 조선도 프랑스와 조약을 맺고 전교의 자유를 획득하려 했다. 한편 프랑스 군함이 조선 연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대건 신부는 한때 오래지 않아 석방되리라는 희망을 갖기도 했다.

그가 세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통역관까지도 했다는 사실을 조선 조정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846년 7월 15일(음력)과 25일의 차대(次對: 임금을 대하고 논의함)에서 세실 서신의 회신 여부와 김대건의 사형 여부를 놓고 동시에 의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정은 이 두 사건을 서로 연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일로 두 가지 의론이 없는 것은 아니온데, 혹자는 법을 집행하는 일에는 빠르고 늦음이 없으며, 오랑개의 정황 또한 헤아리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다가올 일을 기다려 동정을 살피고 법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³⁹⁾

37) 1846년 5월 15일자 해군소장 세실이 본국의 해양 및 식민지 장관에게 보낸 서한, 『韓佛關係史料(1846-56)』, 『교회사연구』 1집.

38) 1844년 중국 광주에서 청나라와 프랑스가 맺은 수호통상조약. 이로써 남경조약을 통해 영국이 많은 특권을 누린 것처럼 프랑스도 여러 특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39) 『일성록』, 현종 병오 7월 25일, (양력 1846년 9월 15일).

‘동정을 살피고 법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내용에서 조정 일각에서 김대건을 살리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가 있었을 것이란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적어도 일부 관리들은 김대건의 외국어와 지적 능력에 대해 높이 사면서 그의 처형만은 면하게 되길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정은 왕명에 의해 김대건을 중재 대신인 전권대사로 임명해 복장까지 준비하여 세실과의 회담이 성사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세실이 그냥 떠나버리자 이에 분개한 조정은 이내 김대건을 처형해 버리고 말았다. 당시 조정의 분노는 우의정 박희수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김대건의 일을 국체와 경범으로 헤아려 보건대, 모두 이제까지 잠시라도 숨 쉬게 한 것조차 불가합니다. 이른바 사술(邪術: 간사한 계략)은 그에게 있어 하찮은 것일 뿐이며, 그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본국을 배반하고 외국 오랑캐를 따른 지 10년 만에 귀국하였으니 이는 나라를 배반한 역적입니다. 이를 법을 시행하여 죽이지 않는다면 ‘나라에 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프랑스의 편지만을 보더라도 서로 소리와 기운을 통하였다는 것이 드러나 가릴 수 없을 것이니, 사악한 무리들이 기운을 더하고 입을 빌려 말하는 것은 장차 어느 지경에까지 이를지 알 수 없으며, 결코 한 시각이라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일종의 희생양으로 처리되었다. 김대건과 페레올이 예측한 대로 프랑스 함대가 위협만 가하고 돌아간 처사는 도리어 조선교회에 대해 한층 더 가열찬 박해를 가하게 했고,

동시에 조선인들 가운데 외국인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어지게 했다. 이는 조선 정부가 김대건과 천주교에 대해 강경책을 취하도록 한 동인이 되었다.

김대건을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문난적(斯文亂賊)의 이단 괴수로 여겨졌고, 개국 이래 처음 서양학문을 배워 서양인들과 교제하면서 서신을 왕래한 중대 시국사범으로 여겨져 1846년 9월 15일 군문효수형(軍門梟首刑)의 선고를 받았다. 김대건은 친구 최양업 신부와 페레올 주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마지막 효심을 보이고 교우들에게 신앙강화를 권면하는 편지(회유문)를 썼다. 그리고 새남터 형장에서 최후의 증언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였으니 여러분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가 외국인들과 교섭한 것은 나의 하느님과 종교를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하여 죽으며 이제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후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천주교를 신봉 하십시오.” 김대건은 형리에게 편하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자세를 묻고 그의 주문대로 자세를 취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1846년 9월 16일에 한강 새남터에서 25세의 나이에 순교했다.

◇ 나가는 말

신부의 유해는 한강 변 모래사장에 가매장 되었다가, 순교

14일 만에 이민식(빈첸시오)이 경비병 몰래 파내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미산리(현 미리내성지) 선산에 안장했다. 안장된 지 55년이 지난 1901년 5월 당시 조선대 목구장 뮌텔 주교는 김 신부의 무덤을 발굴해 유골을 전부 용산신학교 제대 밑에 안치했다. 1925년 2월 시복식을 위한 유해 조사를 위해 김 신부의 유해는 2차로 개봉됐고, 당시 유해 일부가 여러 교회에 분배됐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김대건 신부 유해는 용산 성직자 묘지에 암매장 됐으며, 1·4후퇴 때에는 유해 일부(머리)가 신학생들과 함께 피난하는(밀양성당) 수난을 겪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유해는 서울 혜화동 소신학교로 옮겨져 안치됐다.

이후 1960년 7월 5일 한국교회는 성인의 유해를 3등분 해 굵은 뼈들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에, 하악골(아래턱뼈)은 미리내에, 치아는 절두산 순교성지에 분리 안치했다. 더 많은 신자들이 가까이에서 성인을 현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신학교에 안치된 유해들은 더 작게 쪼개져서 사방으로 분배됐다. 교구로부터 유해를 받아 모셔간 본당이나 기관들은 141곳에 이른다.

또 김 신부의 오른손 뼈 등의 유해를 보관하고 있던 샬트르 성바로 수녀원은 유해를 잘게 쪼개 최소 209 군데에 분배했다. 현재 김대건 신부의 유해 대부분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성당 우측 석관에 모셨다. 성체를 모시는 감실 아래 가운데 유리장 안에 김대건 신부의 두개골(전두골, 협골, 상

악골)을 안치했다. 맨 아래의 대리석 뒤에는 김대건 신부의 남은 유해와 시신과 함께 있던 한강 변 모래 등을 담아뒀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연보】

- ▷ 1821년 8월 21일 : 충청도 솔미(당진시 우강면 송산리)에서 성 김제준 이나시오와 고 우술라의 아들로 탄생.
*아명은 재복(再福), 관명은 대건(大建), 보명은 지식(芝植)
- ▷ 1827년경 : 서울 청파를 거쳐 용인의 한덕동 굴암(용인시 이동면 묵리-골배마실)으로 이주.
- ▷ 1836년 7월 11일 : 성 모방(P.Maubant), 나 베드로) 신부에게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서울 후동(서울 중구 주교동) 신부댁에 도착.
- ▷ 12월 3일 :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최양업 토마스과 함께 마카오로 출발.
- ▷ 1837년 6월 7일 : 마카오 파리외방전교회 극동 대표부에 도착. 이후 대표부 안의 임시 ‘조선대목구 신학교’에서 수학.
- ▷ 11월 27일 : 동료 신학생 최방제, 열병으로 선종.
- ▷ 1839년 4월 6일 : 11월까지 아편전쟁 내란으로 마닐라 인근 롤롬보이(Lolomboy)에서 피신생활을 한 뒤 마카오로 귀환.
- ▷ 9월 26일 : 부친 김제준 이나시오, 기해박해로 서울 서소문 밖에서 순교.
- ▷ 1842년 2월 15일 : 메스트르(J. Maistre, 이 요셉) 신부와

함께 세실 함대 에리곤호 를 타고 마카오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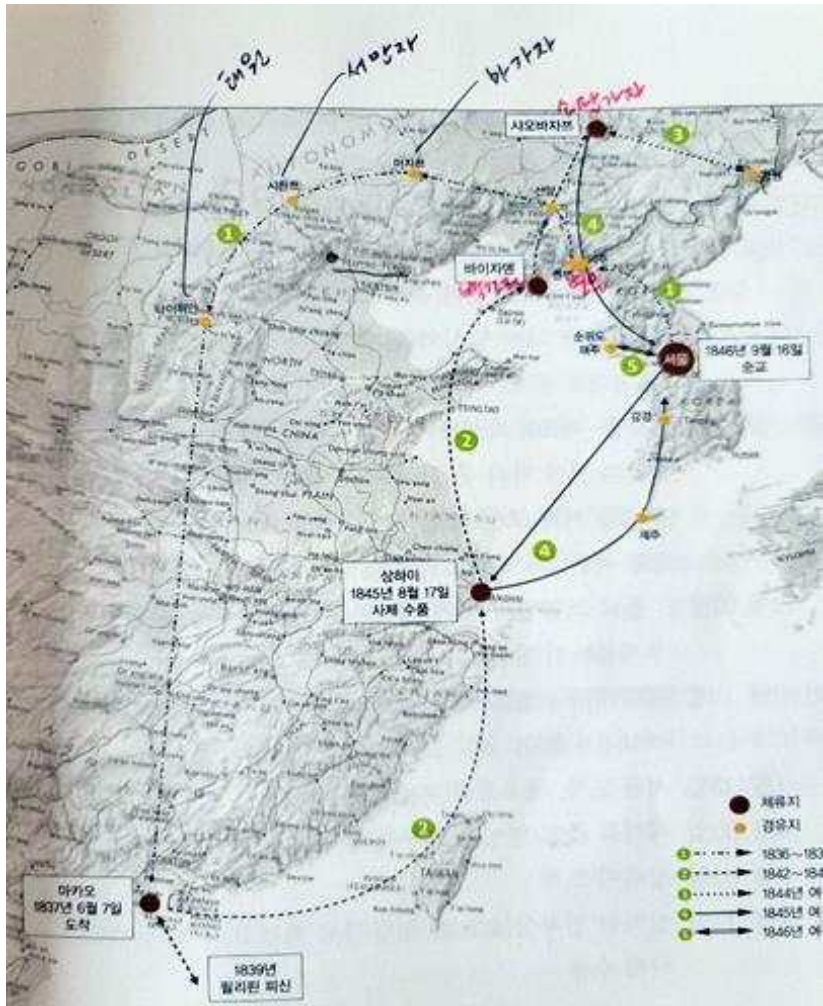
- ▷ 8월 29일 : 난징조약(南京條約) 체결식장에 참석.
- ▷ 9월 17일 : 메스트르 신부와 함께 강남(江南) 대목구장 서리 베시(Bési) 주교댁에 도착하여 브뤼니에르(M. de la Brunière) 신부, 최양업과 상봉함.
- ▷ 10월 2일 : 브뤼니에르 신부, 메스트르 신부, 최양업, 반요한 안내자와 함께 베시 주교댁을 출발하여 북상함.
- ▷ 10월 23일 : 요동(랴오둥: 遼東) 남단 태장하(타이좡허: 太莊河) 해안에 도착.
- ▷ 10월 25일 : 백가점(바이자덴, 百家店, 요녕성 장하시 용화산진) 교우촌에 도착. - 차구성당
- ▷ 12월-1843년 1월: 봉황성(鳳凰城) 변문(邊門)을 거쳐 의주로 귀국했다가 백가점으로 귀환(1차 귀국로 탐색 및 귀국).
- ▷ 1843년 2-3월 초 : 변문으로 가서 밀사와 만난 뒤 2차 귀국로 탐색, 장춘 인근 소팔가자(사오바자쯔, 小八家子, 창춘시 관청구)성당에 도착 최양업과 상봉.
- ▷ 9월 : 변문에서 밀사와 만난 뒤 소팔가자로 귀환(3차 귀국로 탐색)
- ▷ 1844년 2월-1845년 4월 : 제3대 조선대목구장 페레올(J. Ferréol, 고 요한)주교의 명에 따라 훈춘(琿春, 길림성 연변자치주 훈춘시)을 거쳐 조선 경원에서 교우와 만난 뒤 소팔가자로 귀환(4차 귀국로 탐색 및 2차 귀국).
- ▷ 12월 10일 : 동료 최양업과 함께 페레올 주교로부터 소팔가자에서 삭발레부터 부제품까지 받음.

- ▷ 1845년 1월 1일 : 변문에서 조선교회의 밀사와 만나 귀국 (5차 귀국로 탐색 및 3차 귀국).
- ▷ 1월 15일 : 서울 도착, 돌우물골(서울 중구 소공동)에 유숙.
- ▷ 4월 30일 : 페레올 주교 영입차 교우들과 함께 제물포에서 상하이로 출발. (이 여정에서 위험한 극한 상황을 겪음)
- ▷ 6월 4일 : 상하이 도착.
- ▷ 8월 17일 : 상하이 금가항(진자상, 金家巷)성당에서 페레올 주교 주례로 사제수품.
- ▷ 8월 24일 : 상하이 횡당(형탕, 橫堂) 성당에서 첫 미사봉헌.
- ▷ 8월 31일 : 페레올 주교, 다블뤼(A. Daveluy, 안 안토니오) 신부와 십여명의 일행과 함께 라파엘호로 조선으로 출발.
- ▷ 10월 12일 : 제주를 거쳐 충청도 강경에 도착.
- ▷ 11월-12월 : 서울 및 용인지역 순방.
- ▷ 1846년 4월 13일 : 용인 은이공소에서 부활대축일 미사를 봉헌한 뒤 상경.
- ▷ 5월 13일 : 선교사들의 입국 해로를 개척하기 위해 황해도로 출발.
- ▷ 6월 10일 : 연평도, 백령도를 거쳐 순위도 등산진에 도착한 뒤에 체포되어 해주 감영으로 압송되어 4차 공술.
- ▷ 6월 21일 : 서울 포도청으로 이송, 여섯 차례 4차 공술.
- ▷ 9월 15일 : 사형선고.
- ▷ 9월 16일 : 새남터(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로3가)에서 군문 효수형으로 순교함. 그 후 시신이 와서(서울 용산구 용산동)에

안장되었다가 안성 미리내(안성시 양성면 미산리)로 이장.

- ▷ 1857년 9월 23일 : 가경자 선포.
- ▷ 1925년 7월 5일 : 시복.
- ▷ 1949년 11월 15일 : 모든 한국 성직자들의 대주보로 결정.
로마교황청, 7월 5일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축일로 결정.
- ▷ 1960년 7월 5일 : 유해가 혜화동 가톨릭대학으로 옮겨져
안치됨.
- ▷ 1984년 5월 6일 : 시성.
- ▷ 2019년 11월 14일 :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김대건 신부가 2021년 ‘유네
스코 세계기념 인물’로 선정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여정 지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영성

전수홍(안드레아) 신부

◇ 들어가는 말

영성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정의하며 교회적으로는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내적인 자세” 혹은 “성령에 인도되어 복음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자세”⁴⁰⁾라고 정의해보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영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대건 신부의 영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김 신부가 유학생생활, 조선입국 시도, 순교하기 전 옥중서한 등 그가 쓴 서한들에서 발견된다. 김 신부가 쓴 서한은 총 21통인데 2통이 유실되고 19통이 전해오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 1) 하느님과의 친교 영성
- 2) 성모 마리아 신심
- 3) 순명과 개척정신
- 4) 순교영성으로 나누어 전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소주제

40) “영성과 사회적 관계”, 참사람되어 2012년 6월.

뒤에는 현대의 신앙생활과 비교하여 묵상점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하느님과의 친교 영성

김대건 신부가 남긴 서한들을 통해서 먼저 만나게 되는 영성은 믿음과 일치로 바탕으로 하는 하느님과의 친교 영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창조주 하느님을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임자’로 표현하거나 ‘인류 대가족 공동의 아버지’, ‘세상 임금 위에 계신 천주님(하느님)’으로 표현하였다. 즉 동양의 임자 개념과 충효사상 위에서 하느님을 설명한다.

또한 김 신부는 여행 때마다 여러 난관을 겪게 되는데 이를 극복할 때마다 ‘천주의 안배로써’ 또는 ‘천주께서 허락하신다면’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심지어 옥중에서 쓴 서신에는 ‘군란이 일어나고 체포되어 갇히게 되는 이 모든 과정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느님과의 친교에 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가 옥중에서 교우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회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이 주님의 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주님께서 내리시는 상과 벌이 아닐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박해 또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여러분은 이를 달게 받고 참으면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물론 그에게서 하느님을 엄격하고도 존엄하신 분으로 파악하는 전통적인 하느님 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김 신부는 하느님을 저 머리 심연 밖에 존재하시는 두렵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우 가깝고도 친밀한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예를 들면 그가 체포되어 처음으로 문초를 받을 때 배교를 강요하는 관헌 앞에서 ‘내가 공경하는 천주는 천지와 사람과 만물을 조성하신 이요, 착한 이를 상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 신부는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도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여 결박을 당한 저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로 하여금 모든 혹독한 형벌을 끝까지 용감하게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와 믿음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순교영성이 묻어나는 내용이다.

목상점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은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안센주의적 수직신학에 더 심취했지만 김대건 신부는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하느님을 저 멀리 심연에 존재하시는 두렵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 자신과 영적 대화를 통해 도와주시는 친근한 분으로 이해해야 하겠다.

2. 성모 마리아 신심

박해시대 평신도들의 마리아 공경에 대한 사례는 기록이나 묵주, 성모상 같은 출토물들을 통해서 볼 때 활발하게 받아들여진 신심이라 할 수 있다. 김대건 신부의 서한들에도 마리아 신심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카오 신학교 시절의 스승 신부들에게 보낸 서한의 하직 인사 부분에 잘 드러나 있다. ‘기도 중에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전에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라는 내용과, 1844년 창춘 인근의 소팔가자(샤오바자쯔) 교우촌에 머물 때는 스승 리브와(N. Libois) 신부에게 성경, 성물 등과 함께 특히 ‘성모님이 무염시태(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축일은 1854년 12월 8일 믿을 교리로 교황청에서 선포됨. 따라서 1844년은 그 10년 이전으로 이때에도 이 신심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본과 묵주’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1845년 초 부제 신분으로 귀국했을 때는 의주 성 가까이 있는 숲속에 숨어서 묵주기도를 수없이 바친 적도 있었다.

김대건 신부는 성모 마리아가 위험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께 기도했고,

그분들의 자비와 보호와 도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1842년 말, 신학생 신분으로 조선 귀국을 결심할 때도 “하느님의 자비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은혜로 위험 중에 무사할 줄 바라고 있습니다.”(1842년 12월 9일자 서한)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특히 김대건 신부의 성모신심은 1845년 부제품을 받고 고국에 입국한 후 조선 대목구 3대 교구장 페레올 고 주교에 의해 명명된 라파엘호를 타고 11명의 신자들과 함께 상하이로 가던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 살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성모 마리아의 보호하심을 믿었다.

저는 하느님 다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성모님의 기적 상분을 내보이면서, “겁내지 말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모님이 여기 계신다.”는 등등의 말과 가능한 대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1845년 7월 23일자 서한)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김대건 신부는 여행 때 항상 묵주와 성모 마리아 상분을 지니고 다녔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김대건 신부의 성모 신심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굳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닥치곤 했던 역경과 고통은 성모신심을 더욱 돈독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가 사제로 조선에서 활동할 때 선교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묵주보다는 묵주를 만들 수 있는 도구(집게, 구슬 등)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인들의 손재주가 뛰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 **목상점**

우리도 고통 중에 혹은 두려움이 생길 때 은총의 중재자이신 성모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자. 특히 부산교구 초대 교구장 주교이신 최재선 요한 주교님은 묵주기도의 가치를 아주 강조(주교님은 예산을 타러 교구청에 들어온 신자들에게 항상 묵주기도 무슨 신비 몇 단을 암송하게 하고 맞추면 예산을 내주었다고 한다)했으며 10월7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마리아'기념일(로사리오 기도로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 이슬람군을 물리친 전쟁을 기념하는 축일)을 교구축일로 제정 하셨습니다.

3. 순명과 개척정신

김 신부는 조선대목구장 페레올 주교를 비롯하여 르그레즈와(PL. Legregeois) 신부와 리브와 신부 등 직접적인 스승 신부들을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마음속으로는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언제나 그들에게 '공경하올'이란 칭호를 사용하였으며 스스로는 '부당한 아들' 혹은 '무익한 아들' '어린 아들' (filiolus) 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옥중에서 페레올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홀로 되신 어머니를 특별히 부탁한 다음, "주교님의 발아래 엎드려 지극히 사랑하올 아버지이시며 지극히 공경하올

주교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1846년 8월 26일자 서한) 라고 하면서 더없는 존경심을 표현하였다.

아울러 김대건 신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장상과 스승들에게 순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순명정신은 조선 입국로 개척 과정에서 더욱 밝게 드러나는데,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마지막에도 페레올 주교의 명령에 순명하여 선교사들의 조선입국 개척로를 만들기 위해 가던 과정에서 순위도에서 체포되었던 것이다.(1821년 3월 1일 출생한 최양업 신부는 김대건 신부보다 6개월 형이며 신학생 선발도 1836년 2월에 발탁되어 5개월 먼저 라틴어와 신학공부를 시작한 선배이지만 사제서품은 김대건 신부보다 4년 늦게 받았다. 일설에 의하면 최양업 신부는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순명하는 모습보다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반감을 보이기도 하여 김대건 신부와 대조되었다 한다.)

한편 김 신부의 순명 정신은 개척정신과 결합되면서 결실을 맺었다. 1842년 마카오 신학교를 떠난 뒤에 작성한 다음의 서한에서도 이러한 개척정신을 엿볼 수 있다.

“우리로서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조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나 하다면 무슨 위험인들 마다하겠습니까?”(1842년 12월 9일자 서한)

김 신부의 개척정신은 적극적이면서도 진취적이었고, 굳은

신심과 대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페레올 주교도 김대건 신학생이 1842년 말에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의주까지 갔다가 변문(邊門)을 거쳐 백가점(百家店) 교우촌으로 돌아온 사실을 특별한 모험심과 대담성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압록강을 건너 의주로 조선입국이 힘들다고 판단되자 훨씬 더 북쪽인 두만강의 경원지역으로 개척로를 옮겨 조선입국을 시도한 점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개척정신으로 인해 페레올 주교가 그에게 선교사 입국로를 탐색하도록 하고, 자신의 조선 입국로 개척자로 그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김대건 신부가 겪어야만 했던 시련과 절망은 수없이 많았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부제품을 받은 후 1845년에 상하이로 오가면서 경험했던 절망감은 비할 데 없이 큰 것이었다. 이때 그는 “인간의 구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우리의 희망을 오직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의탁하고 누워 잤다.”(1845년 7월 23일자 서한) 이처럼 그의 개척정신은 하느님, 성모님 영성과 굳게 결합되어 있었으며, 20대 초, 중반의 나이에든 조선선교 사업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목상점

순명정신 - 본당에서 성직자, 수도자가 좀 부족하거나 실수가 있더라도 더 기도해주고 순명 할 때 일치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정신 - 외인들에게 천주교를 선교하기 위한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40년~50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신자도 외인입교 한명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현실이다. 가톨릭 신자들은 선교활동을 비롯하여 매사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문제이다. Pay(돈내고), Pray(기도하고), Obey(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며 교회의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엄밀하게 보면 본당신부님, 수녀님들은 3~4년 계시다 가는 손님들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언제든지 제공하여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

4. 순교영성

김대건 신부가 사제로 살았던 기간은 13개월에 불과하다 (1845년 8월 17일-1846년 9월 16일). 그마저도 교우들을 만나 성사를 집전하고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던 기간은 1845년 10월의 귀국 이후 다음 해 6월에 체포될 때까지 8개월에 불과하였다.

박해받던 조선교회의 아들로 태어난 김대건 신부는 일찍부터 치명 즉 순교에 대한 믿음과 신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하루하루를 순교자의 모습으로, 순교의 용덕을 간직한 채 생활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주교의 진리를 설명하고 하느님을 증거 할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신학생 시절이던 1842년 12월 말, 김대건 신부는 라오동의 변문 마을에서 밀사 김 프란치스코를 만나 기해박해 소식을 듣게 된다.(또한 부친 김제준 이냐시오도 순교했음을 듣게 됨 - 당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을까?) 그리고 그는 당시 순교한 프랑스 선교사들(모방, 샬스탕, 앙베르 주교)의 순교 용덕과 영광을 특별히 기록하면서 ‘천상 부르심으로 개선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표현하였다. 순교를 그리스도 용사의 승리요 하느님 대전에서 얻게 되는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이다.(실제로 오늘날도 순교자는 성인품을 심사할 때 기적심사를 관면 할 정도로 순교를 뛰어난 성덕으로 여김)

김 신부가 1845년 7월 스승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순교자를 ‘거룩한 피를 흘린 사람들’로, 순교를 화관·월계관·빨마·영광 등으로 표현한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김 신부가 1846년 6월 10일 황해도 등산진에서 체포된 후 해주 감영으로 이송되어 네 차례 문초를 받고, 6월 21일 서울 포도청으로 이송되어 7월 1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마흔 번의 문초와 함께 형벌을 받으면서도 흔들림이 없이 신앙을 증거하였다. “나는 천주교가 참되기 때문에 믿는 거요. 배교하기를 거부하오.”(1846년 8월 26일자 서한) 이러한 그의 순교 의지는 해주의 황해 감사 김정집 앞에서 이루어진 네 번째 문초 때에 더욱 밝게 드러났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일은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천주를 위해 죽게 되었으니 이는 오히려

제가 바라던 일입니다. 오늘 묻고 내일 묻는다 해도 응당 이와 같이 대답할 따름입니다.”(‘일성록’ 1846년 5월 26일)

이처럼 박해자들의 문초와 형벌 아래서 김 신부가 보여준 믿음과 순교영성은 하느님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느님 사랑 때문에 신앙을 증오하는 박해자들 앞에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이제 그는 마지막 순간이 닥쳐오자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한 저는 또한 그리스도의 권능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로 하여금 모든 혹독한 형벌을 끝까지 용감하게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음력 1846년 6월 8일자 서한) 페레올 주교도 훗날 교우들로부터 들은 김 신부의 최후 증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제가 외국인들과 교섭한 것은 저의 종교를 위해서였고, 저의 주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죽는 것도 천주님을 위한 것이니 제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천주교를 믿으시오.” (페레올 주교의 1846년 11월 3일자 서한)(특히 순교하는 순간에도 휘광이들이 목을 치려 하자 평온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쉽게 목이 잘리는지를 묻고 그렇게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김 신부의 신앙인으로서 삶에 마침표를 찍는 순교 용덕과 종말론적 부활의 영성을 한 마디로 확인해 주는 구절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진리에 발길을 내맡기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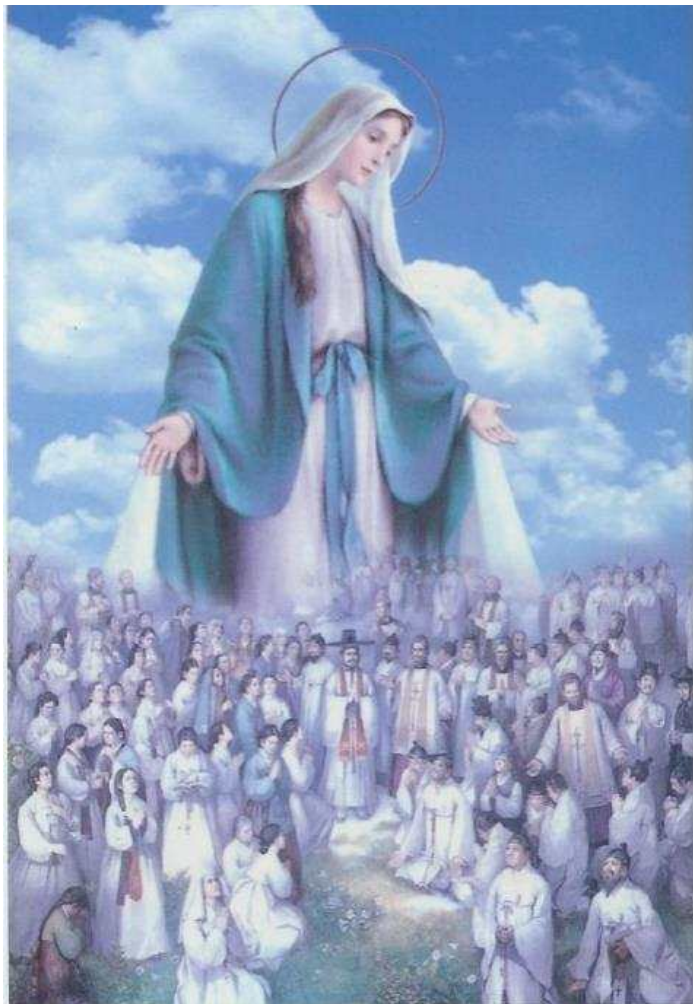
순교의 길을 걸어간 김대건 신부의 마지막 모습이 절로 그려진다. 이처럼 그는 하느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스스로 보여주기 위해 순교의 길을 걸었고, 수많은 박해자들 앞에서 자신의 순교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였다.

목상점

오늘날에도 현대적 의미의 박해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배교자들(냉담, 냉동)이 많기 때문이다. 교우들 간의 불목, 성직자/수도자로부터 상처받음, 경제적 혹은 건강상 어려움, 특히 근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신앙의 해이됨, 또는 게으름 등은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현대적 의미의 박해 요소들이다. 이들을 굳센 신앙으로 극복할 때 진정한 현대적 의미의 순교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 **나가는 말**

과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앙심이 열심한 가정에서는 가족 수대로 묵주를 벽에 걸어두고 매일 조과 만과(아침, 저녁기도)와 묵주기도를 바쳤다. 그런 습관과 기억은 자녀들에게 오래 지속된다. 오늘날 성당에서 실시하는 주일학교 보내기를 시간 낭비로 여기고 학원 보내는 일이 더 중요한 신자들이 많다. 그래서 가정에서 성경 읽기, 묵주기도 함께 바치기, 가족이 함께 성지순례나 성(聖) 영화 감상하기 등을 추천하고 싶다.



IV

질의 및 응답

진행 : 선교사목국 국장 이장환(마르티노) 신부



V

총평 및 마침기도

진행 : 선교사목국 부국장 홍영택(베드로) 신부

1. 총평 - 총대리 신호철 (비오) 주교

2. 마침 기도 및 강복 - 교구장 손삼석(요셉) 주교

